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록 제 2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13일 (금)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 | | | |
|---|-------|-----|
| ○ 의사보고 | | 2면 |
|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17) | | 2면 |
| 2.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 | 3면 |
| ○ 5분 자유발언(김광운 의원) | | 5면 |
| ○ 5분 자유발언(안경자 의원) | | 7면 |
| ○ 5분 자유발언(김현미 의원) | | 9면 |
| ○ 5분 자유발언(김응규 의원) | | 10면 |

(14시 01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구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자꾸 끊어지네요, 의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순서부터는 유인호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보고

(14시 03분)

○ 총무담당관 박윤정 총무담당관 박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유인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어서 김광운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안경자 의원님 그리고 김응규 의원님까지 총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117)

(14시 04분)

○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제9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중 연합정책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연합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

(14시 05분)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김응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충청권 통합 논의는 행정 구역 개편에 집중되어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가 통합 논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 통합 논의와 병행하여 충청광역연합의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충청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을 함께 재정립하고, 제도적·재정적 보완 방법을 공론화하여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뜻을 모아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최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행정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충청권 내 새로운 행정 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미 출범하여 운영 중인 충청광역연합의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논의는 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5극 3특 체계를 제시하며, 초광역 단위의 연대와 협력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충청권은 하나의 권역으로서 기능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며, 충청광역연합은 그 제도적 기반으로 출범한 초광역 협력 기구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국가균형발전 실현, 초광역 협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재 수행 가능한 사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재정 또한 4개 시도 분담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설계된 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충청북도 또한 자체적인 발전 전략과 제도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합 논의에 즉각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하여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가 논의되는 가운데, 4개 시도를 대표하는 충청광역연합은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초광역 협력이라는 국가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 단위의 개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 통합 논의 과정에서 연합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보완함으로써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위상을 함께 공론화하고,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 범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충청권이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 속에서 하나의 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청광역연합에 대해 통합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2026년 2월 13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김용규**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모두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광운 의원)

(14시 13분)

○ **김광운 의원** 수도권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충청을 희생시키는 국가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김응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의 하늘과 땅 그리고 주민의 삶을 관통하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수도권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충청권 전역에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개폐소를 설치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지방의회와 주민을 철저

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디로 언제, 어떤 규모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말해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지방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불공정하고 반헌법적인 에너지 정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신세종 개폐소~신진천 송전선로가 모두 완공될 경우, 전국 송전선로는 9800km에서 2036년까지 무려 1만 7643km로 폭증하게 됩니다.

특히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는 충남 14개 시군, 대전 서구·유성구, 세종시 9개 읍면동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마치 지도 위에 선을 그듯 무차별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왜 우리 주민들이 전자파 공포, 재산권 침해, 산림과 경관 훼손이라는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입니까!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풍요를 위해 충청권 시도민이 제물이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2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 설명회를 단 몇 차례의 요식행위로 대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주민의 동의를 가장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없는 공론화는 공론화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주민 기만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삶터를 지키기 위해 다음 3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십시오.

선로 지중화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지 우회 노선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환경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이 배제된 모든 의사결정 절차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입지선정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고, 모든 회의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며, 회의 내용과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진정한 공론화 과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독점 구조를 과감히 폐기하십시오.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분산시키는 국가 균형발전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권의 하늘과 땅, 그리고 주민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끝

까지 충청권 시도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안경자 의원)

(14시 19분)

○ **안경자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김응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호 연합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대전·충남에서 시작된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논의의 속도는 빨라지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권자인 시도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합리적인 정책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삼 우리 충청 광역연합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출발은 2015년 1월 출범한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이었습니다.

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하고,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 4개 시도가 협력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제도의 가능성을 충분히 시험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제도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행정 통합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부의 주장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껏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도화시켜 놓고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 '5극 3특' 카드를 꺼내 들며, 5극 3특의 실현 수단이 행정 통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는 대체 왜 만든 겁니까.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체계는 행정 통합과 같이 단일 정부로의 통합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 모델도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이 바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광역연합에는 아직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효한 경험도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광역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기존에 만들어놓은 모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장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560만 충청 시도민의 지난 10년간의 논의가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니 너무도 비현실적입니다. 행정 통합은 기존 광역연합 협력 체계 유지를 위한 내부 균형을 깨뜨릴 위험도 큩니다. 대전·충남이 통합하여 통합특별시가 되면 통합특별시의 비중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현재 어렵게 맞춰 놓은 광역연합 내부 균형에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이야 광역연합에 실질적 권한이 별로 없지만, 추후에는 이 변화된 균형이 어떤 갈등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 통합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광역연합의 가능성을 제대로 시험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통합이 최선의 대안인지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이 되면 지방이 광역권으로 발전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무슨 근거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구역이 커진다고 지역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으로 행정비용은 더 증가하고,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의 소멸 방지, 2가지 이슈를 놓고 격한 갈등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은 실패한 제도가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시도해 보지도 못한 제도입니다.

560만 충청 시도민의 지난 10년의 결실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일정에 휘말려 무력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선부른 행정 통합으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지 말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숙고하여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통합은 그 뒤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현미 의원)

(14시 23분)

○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입니다.

충청광역**驿**바은 행정구역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시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동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충청권 청년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 청년 패스권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생활은 이미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세종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는 비율은 25%를 넘고, 세종시 전체 통행의 약 40%가 타 시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종과 청주, 천안과 아산과 대전을 잇는 통근과 통학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은 연결되어 있지만 정책과 재정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대중교통 분담률은 20%~30% 수준으로 수도권의 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시 간 이동의 상당 부분을 승용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에게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은 교통비 부담 때문에 타 지역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줄이고 구직활동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각 시도는 적게는 400억에서 많게는 1500억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 사업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생활 단위에서 체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광역 청년 패스권은 새로운 재정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기존 청년 교통·문화 관련 예산을 광역 단위로 재구성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재정 효율화 전략입니다.

광역 환승 할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이용을 연계하면 청년의 이동 비용은 줄어들고 공공시설 가동률은 높아집니다.

이는 대중교통 수입 증가와 시설 운영 효율화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실행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5극 3특은 공간을 나누는 계획이 아니라 기능을 연결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공동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광역 청년 패스권은 충청권을 하나로 생활권을 완성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립적 광역 경제권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충청권 청년 이동 실태와 교통비 부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시도별 청년 및 교통 관련 예산에 통합 설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광역 청년 패스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청년이 머무는 광역권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청년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충청권의 미래를 앞당기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첫 번째 공동 체감 정책으로 광역 청년 패스권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응규**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1부의장이신 유인호 부의장님께 의사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제1부의장, 김응규 제2부의장과 사회 교대)

○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지금부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응규 의원)**

(14시 29분)

○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유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계신 최민호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소속 국민의힘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시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충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고착화, 지방 소멸 위기,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은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

로 충청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주민의 삶이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성공한 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충청광역연합은 형식적 협의체가 아닌 실질적 초광역 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광역연합은 협력 사업 발굴과 정책 조정이라는 제한적 기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을 계기로 국가사무 이양, 광역 재정 확보, 초광역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실질적 권한 기구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산업·환경·의료·교육 분야에서 단순 협력이 아닌 통합 기획, 통합 집행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충청광역연합은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 통합 논의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도시 중심의 쓸림,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상대적인 소외인 것입니다.

광역연합은 충남·대전 통합 문제로부터 소외된 농산어촌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 시킬 것인가의 정책 조정과 재정 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균형 없는 통합은 또한 다른 내부 격차를 낳을 뿐입니다.

셋째,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통합 논의의 거수기가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견제자이자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 통합은 행정 체계 개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정치·사회적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논의는 다소 행정부 중심, 속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역연합의회는 통합의 필요성, 비용, 행정 구조 변화,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영향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통합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넷째,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충남 통합을 넘어 중부권 초광역 모델로 도약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충북까지 아우르는 중부권 초광역 경제 행정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비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연합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충청이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충청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이 서 있습니다.

이제 충청광역연합은 이름뿐인 연합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연합, 책임 있는 연합, 주민이 체감하는 연합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통합의 방향을 설계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때로는 견제하는 역할을 통해 충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초광역 의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이 함께 통합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충청의 미래를 주도하는 진정한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

○ **출석 의원(13인)**

구형서 김광운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란희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 **청가 의원(3인)**

김선광 이한영 조성태

○ **의회사무처**

처 장 권승학
총무 담당 관 박윤정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연	합	장	최민호
사	무	처	장
초	광	역	자 치 과 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최민호
이경우
임은영
김민희
원계령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구형서	김광운	김현미	박란희	박주화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2.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구형서	김광운	김현미	박란희	박미옥	박주화	안경자	안치영
유인호	이옥규						